

대기질 개선으로 건강권 보호 강화

전북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사업장 집중단속

전북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지자체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

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위주로 집중단속 계획이며 고질적, 상습적인 사업장은 적발을 통해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등 그리고 토사 운반차량 세륜·세차 및 적재함 덮개 여부 등 전반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300만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봄철 외부 활동량이 가장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전국 장애학생체전(5.14~5.17, 4일간)'과 '소년체전(5.25~5.28, 4일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행사장 인접 공사장들의 청결 상태도 중점 지도 한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대기배출 사업장은 억제시설 운영 등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봄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날, 태권도원에서 특별한 기쁨 만끽해요"

상설공연 · 태권 폼 메달 만들기 · 전시회 등 다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옥, 이하 재단)은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어린이날을 비롯한 봄 여행 주간 오는 12일에는 태권도원 입장료가 무료다. 매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펼쳐지는 태권도원 상설공연에서는 격파와 품새 · 국악 등이 어우러진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상설공연에 이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등은 현장 신청을

통해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도 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 폼 메달 만들기'와 태권도복 및 보호구 착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태권 폼 메달 만들기는 메달에 자신의 꿈을 적고 메달을 예쁘게 꾸미는 등 어린이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태권도 품새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비롯해 태권도원 구석구석에 피어있는 봄꽃을 따라서 산책을 하거나 자연에서 마음

껏 뛰어놀 수 있는 등 어린이날 태권도원을 방문하면 특별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태권도원에는 상설공연과 체험관, 모노레일을 타고 태권도원 전망대를 관람할 수 있는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요소가 가득하다"며 "태권도원에 오셔서 태권도를 통해 행복한 어린이날 맞이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대체 휴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5월 7일 휴무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익산시가 지난 30일 시청에서 (주)골든코리아 김미정 대표, 정현을 시장, 조규대 시의장,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도의원 3명(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골든코리아, 익산 제4산단 분양 계약 체결... 90억 투자 · 30여명 채용 계획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주)골든코리아 김미정 대표, 정현을 시장, 조규대 시의장,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도의원 3명(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골든코리아는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1만3,223㎡ 부지에 90여억 원을 투자하고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골든코

리아는 건강식품 선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닭고기 육가공 전문업체로 물량 증대에 따라 90여억 원을 투자해 신설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허핀, 사조, 마니커 등 육계업체를 주요 거래처로 통닭, 절단육, 특수부위(가슴살, 닭다리 등)를 가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삼계, 혼제는 물론 통조림, 소세지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주식으로써 닭고기 소비 증대가 예측됨에 따라 점진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정현을 시장은 "고용 창출에 이바

지할 수 있는 기업이 시에 투자를 결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산단단지 투자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일반산단에 최근 기존 입주업체들의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우량 중견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익산제4일반산단은 83.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장민천 기자

부안군, 오늘 전북 농민공익수당 도민설명회 개최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권역별 도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안을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에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농업인, 일반도민, 농업인단체, 시 · 군의 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4월 26일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5월 2일에는 서남권(부안, 정읍, 고창)

도민을 대상으로 부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북도는 이달 초 도와 부안군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 · 시군 실무TF를 구성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2020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 근로자의 문화향유의 장

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모범근로자 29명 도지사 표창

제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지난 30일 오후 7시 도청 공영장에서 노동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근로자 초청가수 공연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 한국노총 전북본부 안재성 의장,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주

체로서 노동의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 근로자의 문화향유의 장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안재성)가 주관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하며 노 · 사 · 민 · 정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근로자 초청 공연에는 초대가수 정수라 · 자전거탄종경 · 서영은 · 김상배 · 진해성 · 박강수를 초청, JTV전주방송의 공개방송으로 근로자 및 시민 1,000여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근로자의 새로운 활력 충전과 함께 노사가 힘을 한데 모아 노사 상생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